

① 세계의 OMFT - Julie Zickefoose, Dr. Miho Imamura	② OMFT의 필요성과 진단방법 - Dr. 김수환	③ OMFT 기구 및 근기능장치- Dr. 김석곤
④ OMFT of tongue - Dr. 김수환	⑤ 2급 부정교합과 OMFT - Dr. 김수환	⑥ 3급 부정교합과 OMFT - Dr. 김석곤
		⑦ Habit & retention & OMFT - Dr. 김석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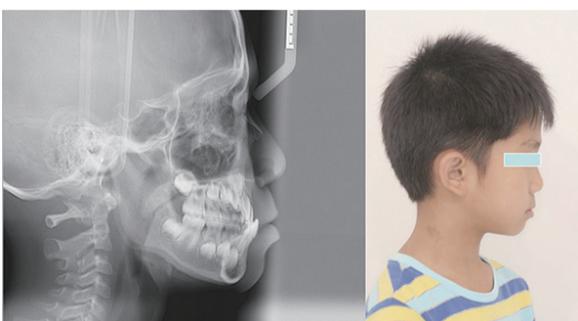
3급 부정교합과 OMFT - Dr. 김석곤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흔히 '주걱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 주걱턱이라는 말은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3급 부정교합 치료에 있어서 유전적인 원인에 국한되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나 기능에 의해 3급 부정교합이 야기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처럼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3급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조기에 개선, 유지하는 치료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급 부정교합은 주로 전치부 반대교합으로 표현되며 골격성과 비골격성으로 분류되고, 비골격성의 경우는 치성과 기능성 2가지로 구분됩니다.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조기에 protraction headgear(face mask)등을 이용한 악형형 치료나 성장 종료후에 악교정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림 1-1] 치성 전치부 반대교합은 상악전치의 uprighting과 하악구치의 근심경사, 하악전치의 flaring에 의해 발생하며 일부치아 또는 전치부 전체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그림 1-2]



[그림 1-1] 골격성 반대교합의 안모와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그림 1-2] 치성 반대교합의 안모와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기능성 3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하악의 폐구시 전치부 조기접촉이나 교두간섭에 의해 하악이 전방으로 미끄러지며 반대교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임상 검사 시 턱끝을 손으로 잡고 살짝 흔들며 밀어보면 하악이 후퇴되며 조기 접촉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 2-2]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골격성, 치성, 기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느 쪽의 비중이 큰 지에 대한 술자의 판단에 의해 진

단과 치료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림 2-1] CO 상태의 반대교합



[그림 2-2] CR 상태의 절단교합

* 3급 부정교합을 야기하는 습관

(1) 턱내밀기 습관

유아기에 턱내밀기 습관을 보이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유병을 늦게까지 빨았거나 이유식 이후에도 수유를 수년간 연장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형 연하' 습관의 잔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만 4-5세경 부모와의 갈등상황 등에서 미운표정을 짓기 위해 턱을 내밀거나, 강한 인상을 모방하는 아이들의 습성에 따라 턱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3]



[그림 3] 미운 표정을 지을 때 턱을 내미는 습관

이런 턱내밀기 습관은 기능성 반대교합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치성변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될 경우 골격성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습관의 중단을 위해서는 모유수유나 우유병 수유를 중단하고 되도록 컵으로 마시는 방법을 가르치고 턱을 내미는 것보다 안으로 넣는 것이 예쁜 것임을 알려주고, 거울을 함께 보며 반복적으로 유도하여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저위설

몸에도 바른 자세가 있듯 구강에도 바른 자세가 있는데 안정시에 입술은 다물고, 혀는 구개측으로 올리고 어금니는 살짝 이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안정시에 혀가 상악이 아닌 하악쪽에 위치하는 것을 저위설이라고 부릅니다. 혀가 저위되면 상악골의 발육이 저하되고 반대로 하악골의 폭경과 길이 성장에 영향을 주어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혀의 바른 자세를 인식시키고 혀거상 OMFT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림 4]



[그림 4] 저위설에 의해 하악 폭경이 넓어진 경우, 구치부위의 폭경이 과도하게 넓어짐

(3) 혀내밀기 습관

'유아기 연하'와 연관된 혀내밀기 습관은 주로 개교와 연관된 습관으로 생각하지만 저위설과 함께 연관된 혀내밀기 습관이 나타나면 하악 전치부를 주로 전방으로 내밀게 되어 치성 3급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혀내밀기 습관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개교는 유아기의 OMFT훈련보다는 개교증을 고쳐주면 자연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정기간 중에 OMFT 훈련을 시행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성 3급이 혀내밀기 습관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도 OMFT 혀훈련만으로 반대교합이 개선하려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교정치료 또는 근기능장치로 반대교합을 개선해주면서 동시에 훈련을 실시해 주게 됩니다. [그림 5-2, 5-3]



[그림 5-1] 혀내밀기와 저위설에 의한 하악공간과 절단교합



[그림 5-2] 교정치료 중에도 혀내밀기 습관의 지속